

전남 9개 지역 응급의학과 전문의 없어...의료공백 재확인

전국 유일 의과대 없어...담양·곡성·고흥 등 응급실 찾아 해매기 일상 4곳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없어...필수의료 인력 확보 시급 수도권 전문의 5만4256명, 비수도권은 4만3427명...의료 격차도 심화

전남 9개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등 심각한 지역 의료공백이 재확인 됐다. 담양·곡성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진·영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전문의 상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시군구 및 전문과목별 활동의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활동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명도 없는 시·군·구는 전체 229곳의 28.8%인 66곳에 달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과 대도시권에서 최근 의정 갈등 탓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지만, '의대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전남은 응급실을 찾아 해매야 하는 일이 일상이나 마찬가지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곳은 담양, 곡성,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장성, 완도, 진도 등 9

곳이었다. 또 경남 11곳(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 경북 10곳(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강원 7곳(태백, 횡성, 정선,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순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광역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중구·영도구·사하구·금정구·강서구와 대구 서구·달성군·군위군, 인천 옹진군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다. 충남과 충북에는 각각 5곳, 전북에서는 6곳의 지자체가 응급의학과 불모지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예 없는 시군구 역시 각각 14곳, 11곳에 달했다. 인구 1000명당 1명이 안 되는 곳도 178곳이었다. 담양과 곡성 비롯해 강원 정선·고성, 전북 무주·장수·임실, 경북 청송·영양·울릉, 경남 의령 등 전

국 11곳도 포함됐다. 강진과 영암 등 전국 14곳 지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과 전문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시군구 중 218곳에서 인구 1000명당 내과 전문의가 1명 미만이었으며, 3곳(경북 영양·울릉, 경남 산청)은 1명도 없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치과의사, 한의사 제외)이었다. 강원의 고성군이 0.3명이었고, 양양군과 인제군이 각각 0.4명, 횡성군 0.6명, 정선군 0.7명으로 열악했다. 같은 상위위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비례)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년)간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문의와 비수도권 전문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만4256명으로 8623명 증가한데 비해, 같은기간 14개의 비수도권에서는 전문의가 4만 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만 늘었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전문의 233명이 늘어 14개 비수도권 중 4번째로 많았지만, 전남은 68명으로 14개 비수도권에서 55명이 늘어난 경북 다음으로 전문의 증가가 적었다. 김선민 의원은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해 불편해하면 수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치된 활동의사 현황을 보면 왜 국민이 의대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 피해 달아나다 30대 운전자, 화물차 들이받고 숨져

광주 산월동서 안타까운 사고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갓길에 정차된 대형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졌다.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의 한 도로에서 A(3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에서 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광주시 광산구 첨단 먹자골목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는 유튜버가 뒤쫓아 오자 달아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튜버는 A씨를 100여m를 추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튜버는 A씨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렇게 23일 광주시 북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북구직원들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게임 캐릭터 죽게 해서”...지인 폭행치사

집 찾아가 살해한 20대 입건조사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자주 죽게 해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고, 아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4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20대 남성 B씨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이들은 온라인 RPG 게임을 하며 자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같은 팀인데도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자주 죽게 만들어 아이템을 가로채 간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데 대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전 광주를 찾은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이후 다시 현장을 찾아 B씨의 상태를 살렸고 A씨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B씨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며 A씨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 직장동료 숨지게한 30대 구속 ‘던지기 수법’ 마약 공급·매수자 등 7명 송치

광주경찰청에 전 직장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살해치사 혐의로 구속해 조 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동료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만나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먹에 맞은 B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도심에서 일명 ‘던지기’ (특정 장소에 숨겨 두면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한 30대 남성과 매수자 등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을 공급한 30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을 구매한 광주지역 매수자 6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으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4월께 광주시 서구와 북구 일대 총 118곳에 필로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유통하고 6명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통책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을 공급받아 소량 단위로 나눠 은닉하고 장소를 유통책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은 SNS에서 광고를 보고 유통책에게 연락해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마약 83.35g을 압수하고 유통망을 추적해 경기도 야산에 묻혀 있던 마약 103.4g 등 총 186.75g (6억2000만원 상당, 6200회 동시 투약 분)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총책과 구매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8%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매출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자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